

전 세계 만민을 위한 신문

만민뉴스는 지난 30년간 하나님의 살아 계신 증거를 담은 콘텐츠를 다국어로 발간하여 영혼 구원에 앞장서 왔다.

발에 감추인 보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발에 감추인 보화를 산다는 것은 죄를 피 할 리기까지 싸워 버려 주님의 마음을 닦는 것을 의미한다.

“전할수록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담긴 만민뉴스를 영혼들에게 전하며 영육 간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다는 국내외 성도들의 고백.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

만민뉴스가 있어 행복한 문병례 권사, 미국 방명길 성도의 간증과 33번째 언어 루마니아어 만민뉴스 발간에 관한 소식.

만민뉴스

제788호 2017년 5월 14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 만민뉴스 창간 30주년 맞아 33개 언어로 전 세계 영혼들에게 전하는 선교지

전 세계 만민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전하는 선교지, 주간 '만민뉴스'가 창간 30주년을 맞았다.

1987년 5월 17일, 월간 '만민중앙소식'으로 창간한 후 1991년 1월 영어판 발간을 시작으로 해외 영혼들을 위해 다국어 제작에도 마음을 쏟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교회 창립 9주년을 맞아 격주로 발간하다가 2009년 10월, 교회 창립 27주년을 맞는 지령 400호부터는 제호를 '만민뉴스'로 변경하고 매주 인터넷 신문과 함께 동시 발간해 문서선교에 일익을 감당해 왔다.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은 2012년 11월부터

는 인터넷 만민뉴스(www.manminnews.com) 서비스를 시작해 한국어를 비롯하여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불어, 히브리어, 타밀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몽골어, 태국어, 파갈로그어, 비사야어, 아랍어, 에스토니아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우르두어, 네덜란드어, 불가리아어, 핀란드어, 덴마크어, 스웨덴어, 미얀마어, 네팔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싱할라어 총 32개 언어로 발간되어 전 세계 어디서나 읽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동유럽 몰도바 가정교회 성도들과 루마니아 성도들의 요청으로 루마니아어 만민뉴스가 6월 4일 첫 발간을 앞두고 있다.

현지 사정에 따라 매주, 격주, 월간, 분기별로 발간하는 다국어 만민뉴스는 무엇보다 성경 말씀이 명쾌하게 풀린 생명의 말씀과 각종 문제의 영적 해답을 다룬 기획특집 기사,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의 응답과 치료, 축복의 간증과 국내외 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만민뉴스가 매개체가 되어 구원의 길로 인도받을 뿐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3, 4면 참조).

이스라엘 목회자협의회 회장 다니엘 로젠 목사는 “만민뉴스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 말씀과 권능의 역사들을 전파해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축복을 주는 간증들과 교훈들이 풍성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감에 있어 많은 힘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소식지인 만민뉴스를 발행해 주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만민뉴스 창간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싱가포르만민교회 황핑핑 선교사는 “만민뉴스는 읽기 쉽게 되어 있으며, 영적 지식을 쌓을 수 있고 각종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간증을 통해 믿음이 성장합니다.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오사카만민교회 이와모토 요요코 집사는 “만민뉴스는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제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도 만민뉴스에 실렸던 간증이 떠올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서 매우 유익하지요. 페이스북에도 만민뉴스의 칼럼, 간증, 기사 등을 올리는데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공해병에 걸려 7년간 병마와 싸우던 중 만민뉴스를 통해 우리 교회로 인도받은 박흥기 장로(남지역장연합회 회장,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한솔PNS' 감사)는 “20년 전, 현관문에 꽂힌 만민뉴스 한 장이 저를 생명의 제단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공해병을 깨끗이 치료받은 뒤 제 삶은 오직 감사와 기쁨,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소망으로 가득합니다.”라며 “예전의 저와 같이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치료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소식지가 되어 주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창간 30주년을 맞이까지 만민뉴스를 통해 전 세계 무수한 영혼에게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축복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44)

우리 주변을 돌아 보면 많은 사람이 행복을 찾아 열심히 살아가지만, 참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끊임없이 땀 흘리며 수고해도 쌓아온 부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볼 수 있지요.

과연 무엇이 변치 않는 행복을 줄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주인인 영과 영의 지배를 받는 혼, 영혼이 거할 장막인 육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수한 세월이 흐른 뒤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게 되었고 더 이상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범죄한 아담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지식, 즉 생명의 지식이 점점 빠져 나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사단이 주관하는 대로 비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영은 마치 알맹이가 없는 쪽정리와 같이 껍질만 남게 되었고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롬 1:28-31).

이에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감추어 두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삼 일 만에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니 마음에 기쁨이 임하지요. 또한 각종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음이 임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마음에 천국이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2.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후 숨겨 두었다’는 것은 죽은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아직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행함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은, 주님을 영

접하여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 마음속에 천국이 있음을 깨닫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비진리를 버려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그 마음속의 불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사단이 그 비진리를 주관해 어둠 가운데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혼 속에 갇혀 있던 영이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지만, 사람의 주인 구실을 하려면 혼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고후 10:5).

혼은 사단의 주관을 받아서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해 나갑니다. 그래서 혼이 그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 곧 혼의 사람은 사단의 주관을 받고 어둠 가운데 거하기에 그 혼을 깨뜨리지 않는 이상 영이 살아날 수 없고 주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혼이 깨어지고 영이 살아나는 만큼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고 영혼이 잘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면 자기 소유를 부지런히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훨씬 가치있는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떤 사람이 황폐한 땅을 개간하던 중, 삼 끝에 이상한 물건이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을 파보니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었지요. 얼른 흙으로 덮어 숨기고는 궁리를 하다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기로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소유를 판다’는 것은 영적으로 혼을 깨뜨리는 작업이요, 하

나님 말씀에 합당치 못한 육체의 일(갈 5:19~21)과 육신의 일(롬 13:13~14),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을 버려 나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라, 감사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등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해 기도하면서 죄악을 버리는 과정이 곧 자기의 소유를 파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을 버려가다 보면 성령의 소욕을 좇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고, 영의 사람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요(히 12:4), 영의 사람이 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지요(벧후 1:4). 어떤 물건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면 그 주인에게 값을 주고 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을 소유하려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대가를 드려야 하지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드려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모든 소유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음을 알고도 자기의 소유를 파는 것이 아깝게 여겨진다면 밭을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팔 수 없지요. 그러나 천국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려어도 실상은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심령 천국을 이루시고 영원한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 리 은 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복음을 전하는 행복, 체험한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만민뉴스를 전하다 보니
연약함도 치료받고 강건해지며 마음 안에 영혼 사랑과 기쁨이 채워지는 등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다는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본다.



파브리스 플랑드르 집사
(49세, 벨기에 에노만민교회)

“하나님 권능이 절실한 유럽에 성령의 역사를 전합니다”

참된 교회와 목자를 찾던 중 2011년 4월, 노현숙 목사님의 '손수건 집회(행 19:11~12)에 참석하여 만민중앙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말씀과 찬양, 공연, 해외 연합대성회 등을 접하며 큰 감동을 받았지요. 2012년부터는 노현숙 목사님(에노만민교회 담임)과 함께 샤를로와 시내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에 노방전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복음이 벨기에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 널리 전파되고, 나아가 각 도시에 만민지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말이지요. 벨기에는 수도 브뤼셀에 EU본부가 있는 것만 보아도 기사와

표적이 없는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어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더욱 절실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더욱 열심히 전할 수밖에 없지요. 가족이나 직장 동료, 이웃,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은 물론 노방전도를 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영혼들에게 만민뉴스를 전하고 있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전도하면서 주님께서 새신자를 더해주시거나 장결자를 찾게 해주시는 체험도 합니다. 이처럼 영혼 구원에 힘쓰다 보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2015년 8월,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하여 10년 동안 40%나 잃었던 오른쪽 귀의 청력을 치료받아 이후로 잘 듣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테레사 나카마 성도
(80세, 페루만민교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2012년 페루만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뒤 삶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선'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이 큰 차이가 있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은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풀이 받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고, 참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니 제 삶이 변화되었으며 성격도 변했어요. 놀랍게도 이제 제 삶은 평안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다보니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알리고 싶어 만민뉴스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 사랑, 권능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간증이 수록돼 있어 만민뉴스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합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성도들과 함께 만민뉴스를 들고 병원에 찾아가기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는데 제 몸이 이전보다 더 강건해졌고 제안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 그 뜻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종애 권사
(70세, 3대대 31교구)

“만민뉴스를 들고 온 남편은 ‘우리 이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녀보아도 참된 생명의 말씀을 찾지 못해 갈급하던 중, 남편이 신문 한 장을 들고 와서 “여보, 우리 이 교회에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만민뉴스였지요. 1998년 5월, 남편과 함께 만민중앙교회를 찾아간 날은 '제1회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와보는 곳임에도 마치 오랜만에 친정집에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포근히 안아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천국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십 년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처음 들어보는 송이꽃보다도 더 단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참석한 날부터 성회가 끝날 때까지 시종 눈물로 예배를 드렸지요. 이후 당회장님의 설교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닦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다니엘철야뿐 아니라 별미기도도 참석

해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썼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폐차되는 큰 사고에서 조금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놀라운 체험도 하였지요. 저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생명의 제단으로 인도해 준 '만민뉴스'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편이 정성껏 접어준 만민뉴스를 이웃에게 전한 지 17년이 된 지금도 매주 600부씩 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할 따름인데 하나님께서는 일흔 살임에도 어떤 질병 없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셨지요. 경기도 부천에서 매일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교회에 와서 다니엘철야 기도를 드리고, 선교회 조장 사명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아에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5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7.5.14~5.20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육체의 결여 1
- 일곱교회 1-4
- 신자의 의도 4-9
- 지옥 11-15
- 3차 영혼육 12-14
- 믿음의 분량 14-18
- 심고 거두는 법칙 2-4
- 요한계시록 강해 93-100

GCN TV설교

- 영으로 들어가는 습관 3(이수진 목사)
- 목자님의 열매 3(이희선 목사)
- 선 1(신동초 목사)
- 열 재앙 26(정구영 목사)
- 하나님의 뜻(김수정 목사)
- 중심의 사모함(조수열 목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다시해보기) 14
- 권능 스페셜 16
- 창조와 과학 13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77
- 내 마음의 찬양 16
- 모두 드려요 40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6
- 러시아 연합대성회 1
- 믿음으로 걸어온 길 14

전국 어디서나
allelu tv 882번

세계 어디서나
RokuTV

“만민뉴스를 읽고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문병례 권사 (82세, 3대대 31교구)

저희 가정에 아들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대학진학의 꿈이 좌절된 큰아들이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면서부터였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온 동네를 헤매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 곳을 하고 병원도 찾아 다녀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내며 제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1993년 어느 날, 지인이 ‘만민뉴스’를 건네주며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 치료받은 사람이 많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만민뉴스’를 받아 읽어보니 아들을 살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저는 충청남도 서산에서 상경하여 신문에 나온 약도를 보고 만민중앙교회를 찾아와 등록하였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 지난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통회자복 하였습니다. 이후 큰아들의 정신질환이 깨끗이 치료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1998년 뇌출혈로 쓰러져 생존 가망성이 30%밖에 안 되었던 작은아들은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저 또한 2002년 척추염이 발병하여 의사는 척추를 제거하고 인조 뼈로 갈아 끼우는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당회장님께 기도 받고 깨끗이 치료되었지요.

이제 저희 가정은 주 안에서 항상 평안합니다. 불경기 가운데에도 작은아들의 사업터에 축복해 주셔서 확장 이전을 하였고 며느리는 교구 조장으로, 딸은 구역장과 금빛성가대 대원으로, 사위는 만민봉사대 대원으로 충성하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가정과 인생의 문제 앞에 고통받던 저를 생명과 권능의 제단으로 인도해 준 ‘만민뉴스’가 너무 귀합니다. 이처럼 귀한 축복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축복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말씀, 만민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방명길 성도 (41세, 뉴욕인터내셔널만민교회)

2011년 2월, 저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믿음의 분량’ 설교 텍스트를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 흥미로워 시간가는 줄도 몰랐지요. 제 믿음의 현주소가 보이고 믿음의 분량에 따른 천국의 처소와 상급도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 ‘창세기’ 말씀이 시원하게 풀이 되어 있고 ‘육과 영’ 등 생소하면서도 성경적인 말씀들을 대하여 탄성이 절로 나왔지요.

이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습관들이 버려지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고, 전에는 멀고 무섭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자상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 느껴졌습니다. GCN방송(www.gcntv.org)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보면 너무 감사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귀한 성경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이 불쌍해 보여 전하기 시작했지요.

2015년 8월, 만민 하계수련회에 다녀온 뒤 저는 뉴욕인터내셔널만민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뉴욕 맨하튼에서 택시영업을 하며 날마다 목자의 공간 안에 보호받고 축복받고 있으니 참 행복합니다.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가 담긴 ‘만민뉴스’를 항상 차 안에 비치해 손님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외진 곳에 가게 되면 그곳의 영혼들도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편함에 만민뉴스를 넣어두곤 하지요.

저희 어머니는 원래 약한 체질이었는데 ‘2011 만민 하계수련회’ 참석차 한국에 갔다가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님의 기도를 받고 관절염이 치료됐고, 감기도 안 걸리는 건강한 체질이 되었습니다. 또 목회를 하며 고아원도 운영하시는데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니 아이들도 병치레 없이 건강하고 교회에도 물질의 축복이 임하고 있지요.

만민 제단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목자의 공간 안에서 제가 한 것 그 이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해외에서 온 편지

사랑하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 만민의 성도님들!

저희는 당회장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몰도바 성도들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인터넷으로 같이 드리며 영적인 흐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차 관계로 주일 대예배는 녹화로, 저녁예배는 성전에 모여서 스크린으로 실시간 함께 드리고 있지요. 또한 매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다니엘철야를 통해 습관을 좇아 불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어로 발간되는 ‘만민뉴스’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되며 전도지로도 사용합니다. 우편으로 받는 수량이 부족하여 저희는 PDF 파일을 받아 직접 프린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몰도바의 청소년들은 더 이상 러시아어를 배우지 않고, 지방으로 가면 러시아어보다는 루마니아어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용어인 루마니아어 선교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에게 ‘만민뉴스’ 루마니아어 발간 소식은 큰 기쁨과 행복입니다. 귀한 만민뉴스를 만들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사랑과 희생으로 저희들까지 품어주시는 사랑하심은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필요로 하는 성도들의 요청에 의해 만민뉴스는 현재 32개 언어로 발간되고 있다. 6월 초에는 루마니아어가 추가되어 이후 33개 언어로 발간된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2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이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